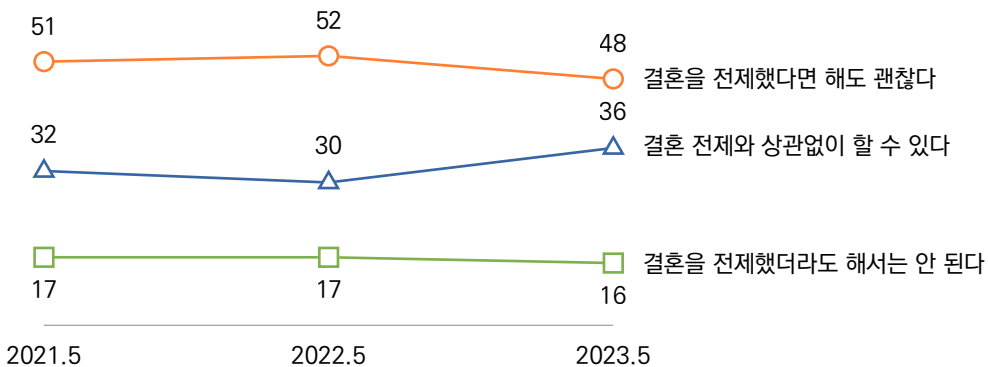




성인 3명 중 1명(36%) 이상, 결혼 전제하지 않더라도 ‘동거할 수 있다’!

- ▶ 최근 종영된 TV 드라마 ‘낭만닥터 김사부 3’에서 미혼 주인공 남녀가 부모 허락 없이 동거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지지받는 장면이 나온다. 대중매체가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보내고 있는 요즘이다.
- ▶ 최근 발표된 결혼 전 동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(한국 리서치)가 있어 소개한다. 2021~2023년 혼전 동거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‘결혼을 전제했다면 동거해도 괜찮다’는 인식이 절반을 유지하고 있었고, ‘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’는 응답이 36%로 작년 대비 6%p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. 한국인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은 ‘결혼 전제 여부’를 떠나 동거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.

[그림] 결혼 전 동거 인식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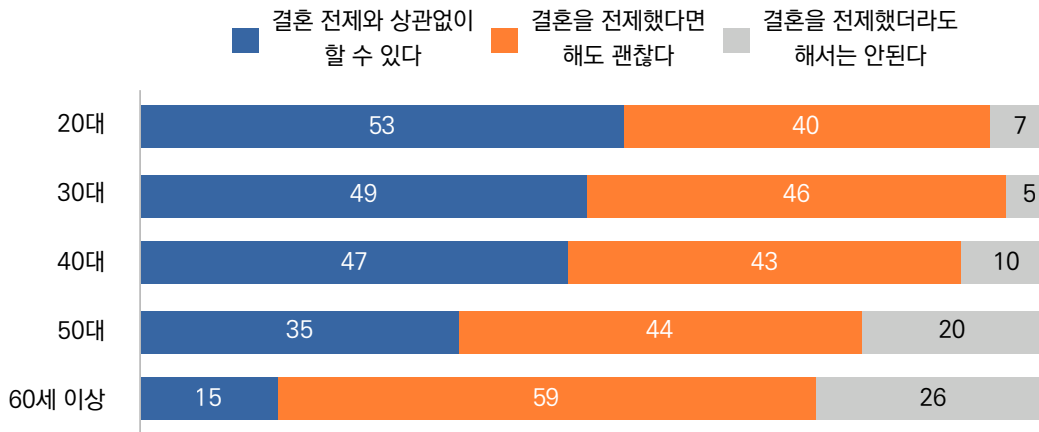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'2023 결혼인식조사(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)', 2023.06.21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3.05.26.-05.30)

◎ MZ세대의 절반, 동거는 결혼 전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!

- ▶ 연령별로 결혼 전 동거 인식에 어떤 차이를 보일까? 2030세대, 즉 MZ세대의 절반이 ‘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가 가능하다’는 입장을 보였고, 반면 60세 이상은 15%에 불과해 세대 간 동거 인식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.

[그림] 연령별 결혼 전 동거 인식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'2023 결혼인식조사(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)', 2023.06.21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3.05.26.-05.30)
*합계가 100%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